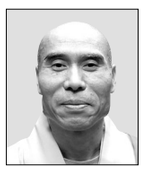
일 주 문



구정맞이 자비나눔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스님은 1월 17일 서울 홍은2동주민센터에서 지역내 독거어르신들에게 자비의쌀 20kg 100포대를 전달했다.



고양시사암련, 신년하례법회

대오 고양시사암연합회 회장 스님은 1월 11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고양시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소설가 구효서,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

중편 〈풍경소리〉로… 문학사상 11일 발표



불교적 심상을 소설에 꾸준히 담아온 구효서 소설가가 제41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선정됐다. 선정 작품은 중편소설 〈풍경소리〉다.

문학사상사는 1월 11일 "제41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구효서 소설가, 우수상에 김중혁 · 이기호 · 윤고은 · 조해진 · 한지수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작인 구효서 소설가의 〈풍경소리〉는 주인공 미와가 "달라지고 싶으면 성불사에 가서 풍경소리를 들으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성불사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은 성불사의 대중들로 인해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성찰을 이루는 과정은 선문답으로 묘사되며 몰입감을 더한다.

이번 수상에 대해 구효서 소설가는 "(글 쓰는 과정을)한 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것은, 쓰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즉각 존재를 환수당하는 것이 소설가의 운명이기 때문"이라며 "절박한 계제였으니 심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생명 연장의 기쁨을 이길 기쁨이 있을까"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품집은 1월 18일경 발간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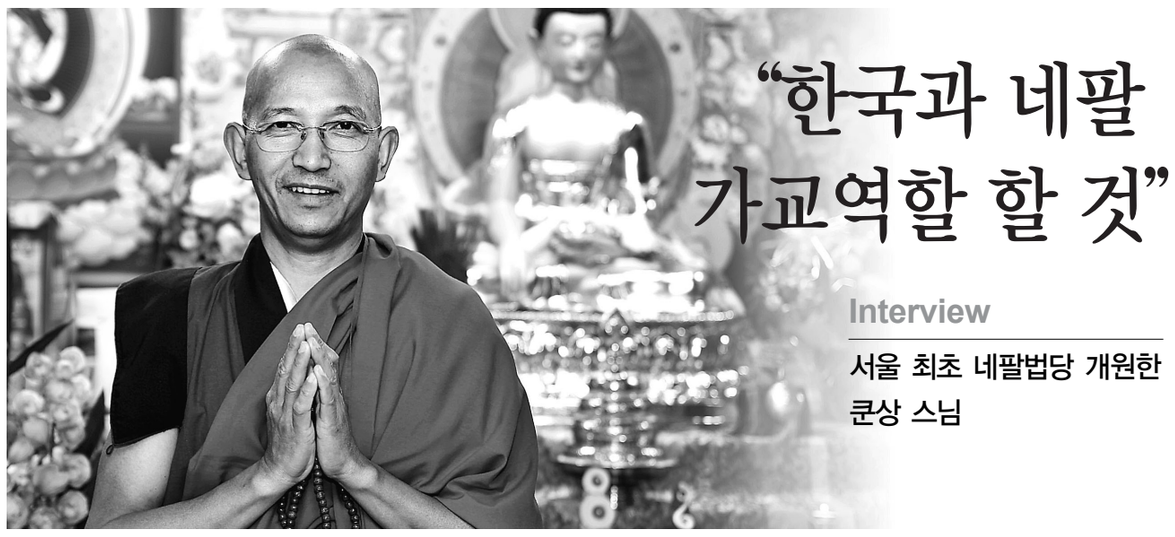
동국대(총장 보광)는 1월 10일 인사를 단행했다.

〈부총장〉 △기획부총장 이의수 △교무부총장 김성훈 △대외부총장 이관제

〈정각원장〉 △정각원장 혜원 스님

〈대학원장 및 대학장〉 △일반대학원장 윤성이 △영상대학원장 김정환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 김관규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신성현 △문과대학장 김영민 △이과대학장 김형상 △법무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한희원 △행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 곽채기 △경찰사법대학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장 이윤호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김진선 △바이오시스템대학장 이광근 △공과대학장 박준영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김승호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장 신영섭 △약학대학장 권경희 △다르마칼리지학장 곽문규 △융합소프트웨어교육원장 이강우

〈현불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한국과 네팔 가교역할 할 것"

Interview

서울 최초 네팔법당 개원한 쿤상 스님

1999년부터 한서 불교공부
네팔 · 한국 교류에 지속 노력
정우 스님 등 불자들 후원
개원 후 기도, 참선도 진행

서울 강남 고층빌딩 사이에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작은 법당이 문을 열었다. 바로 '서울 네팔법당'이다.

쿤상 라마 도르제 스님(이하 쿤상 스님)이 1월 8일 일원동에 개원한 네팔법당은 네팔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도량이다. 그동안 서울 시내에는 성북구 네팔인 쉼터 '자비의 집'이 있지만 법당으로서는 최초다. 지하에 30평 규모인 서울 네팔법당은 향후 네팔불교와 한국불교 교류의 거점 역할도 수행한다.

쿤상 스님은 "한국에는 4만 명이 넘는 네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쉼터역할이 우선이겠지만, 네팔불교를 알고 싶어 하는 한국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꾸며 나가겠다"며 "어렵게 시작해 아직 많은 것을 갖추진 못했지만 양국 불교의 가교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쿤상 스님은 1999년 한국에 들어와 2003년부터 남양주 보광사에서 한국불교를 배웠다. 네팔과 한국불교를 동시에 전하는 법당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찰나 한 노 비구니 스님이 제안을 했다.

"법명을 밝힐 순 없지만 인연으로 만난 한 비구니 스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인척 중에 상가를 하는 분이 있는데 공간이 빈다고요. 와서 보니 지하이긴 해도 터가 좋았어요. 저렴하게 임대 계약을 맺고 법당 문을 열게 됐습니다."

서울 내 최초 네팔법당 개원에는 평소 티베트와 네팔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등이 후원했다. 2014년에는 불자들이 만다라 전시회를 열어 수익금을 보태주기도 했다.

쿤상 스님은 한국불교 특유의 나눔 문화에 매력이 있다고 했다. 이는 서울 네팔법당에도 반영돼있다. 서울 네팔법당 규모는 100㎡(약 30평) 가량이다. 네팔법당 주불은 네팔양식의 석가모니불이지만 왼쪽에는 지장보살도 모셔져 있다. 법당 내부에는 네팔식 탱화와 오색 천 장식과 함께 신중단도 마련돼 있었다.

"저와 네팔에 보내준 호의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네팔이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이주민, 그리고 한국분들 누구나 평소에 찾아와 기도와 명상을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법회도 네팔과 한국 양국 방식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히말라야라마협회 대표도 맡고 있는 쿤상 스님은 한국불교를 네팔 등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대중을 위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한국과 네팔을 떠나 불제자로서 대중들의 행복을 위해 지속 노력해가겠습니다."

한편, 8일 열린 개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지상 스님,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동두천 용수사 지원장 우르겐 스님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석가산스님문도회 사경 회향 기원법회 봉행

1월 11일 진천 호국원융사서
2차 회향 5월 8일



석가산문도회 회원들이 사경정진의 원만회향을 발원하고 있다.

석가산문도회(회장 운암)는 1월 11일 충북 진천 호국원융사 대법당에서 '가산스님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58권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가산 스님의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원만 회향을 기원하고 제방의 스님들과 사부대중에게 고하는 의미로 열렸다. 앞서 가산 스님은 대승권 최초로 경전결집의 원을 세우고 무문관 묵언을 원칙으로 사경 정진에 들어갔다.

가산 스님은 호국원융사 목우한실에서 대방광불화엄경 나무아미타불 화엄성중을 칭념하고 1자 1배로 제1차 원융결사 345일을 원만 회향한 바 있다.

문도회 회장인 운암 스님(칠곡 운암사 주지)은 "매일 사경에 전념해 14장의 사경을 하시고 그 과정을 빠짐없이 일지로 기록하셨다. 스님은 오직 경전결집의 대원만 생각하고 있다. 문도회는 마음을 모아 가산스님의 큰 발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물심양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사경은 예정대로 올해 음력 5월 8일에 회향 예정이며, 제3차는 경전결집 마지막 발원을 위해 세계 53국을 돌며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종무원조합, 성역화 참여

1월 11일 아름다운동행에 4,300만원 전달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성만재)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성역화불사 기금 4,388만원을 전달했다.

성만재 종무원조합 위원장은 "앞으로도 종무원으로서 자부심을 지니고 조계종과 총무원 다양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며 "불교문화를 지키고 대중화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신도 등 5명도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성역화불사를 위한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승희 기자

"출가본회 직시, 실천하자"

관음종 9일 낙산 묘각사서 신년하례법회



관음종은 1월 9일 낙산 묘각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종단의 어른과 도반 그리고 사제 간의 결속을 다졌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부처님 출가본회를 올바로 직시하고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후 개최된 제54차 중앙종회에서는 2017년 예산 49억 3,300만원이 확정됐으며, 일본 조세이탄광 희생자 위령재, 라오스 대학생 초청 한국문화체험 등이 결의됐다.

김주일 기자

이란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

5일 종교간대화센터, 조계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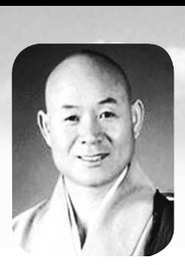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5일 이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했다. 모함마드 마흐디 타스키리 종교간 대화센터장 등 10여명은 주지 지현 스님과 차를 마시며 양국간 종교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